



### 광주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지원방안 토론회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의회와 함께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시청각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17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광주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는 광주사회서비스원 허준기 연구원이, 토론은 김형수 광주시립점자도서관 관장, 나두호 광주시 수어교육원 팀장, 이창진 실로암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팀장,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홍유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립대, '소통과 화합 통합의 날' 행사

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 16일 학생문화복지관 아트홀에서 대학구성원,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 그리고 통합의 날' 행사를 열고, 전남도립대-목포대 통합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전남도립대-목포대 통합논의 연장선으로, 대학 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간담회로 시작됐다. 간담회에는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 총장, 전남도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학 통합 필요성과 통합 이후 기대되는 지역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양 대학 총장도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통합 비전을 공유하며 통합 추진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전남도립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 대표들이 '대학 소통과 화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통합을 통해 실현될 변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다짐했다. 오지현 기자



### 밝은안과21병원, 초록우산 후원금 전달

밝은안과21병원은 1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장 김은영)이 주관하는 '2024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 참여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광주 지역 내 소외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선물비, 주거비, 학습비, 방한복 구입비, 난방비 등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연말 대표 캠페인으로 밝은안과21병원은 2021년부터 매년 산타원정대의 산타가 되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덕배 대표원장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 동신대-전남도광양교육지원청, 업무 협약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이 전남지역을 이끌 차세대 리더 양성에 힘을 모은다. (사진)

동신대는 지난 16일 오전 광양여자중학교에서 광양교육지원청과 함께 차세대 리더 양성 및 진로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동신대 교원, DS TOGETHER 여성리더십최고위과정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 광양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전폭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주고 진로 지도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동신대는 이날 협약에 앞서 동신대 DS TOGETHER 여성리더십 최고위과정 1기 수강생 리더들이 강사로 참여해 광양여중 2학년 재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차세대 여성 리더십 캠프 '퍼스트 핑크의 선택' 전문가 진로 특강을 펼쳤다. 최동환 기자



### 광주서구장학재단, 인재육성 장학금 2억원

(재)광주서구장학재단은 지난 12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고등학생, 대학생 등 125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2억 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서구장학재단은 올해 장학금 지원규모를 작년 1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고등학생 15명에게 각 70만원, 대학생 105명에게 각 2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5명에게는 각 70만원을 지원했다. 박찬갑 이사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후원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혀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2025 신입생 예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는 학교 무등관 CDHC 센터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을 실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예비 신입생, 학생회 임원, 대학원생, 치위생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야무진 특강'이라는 주제로 선배특강과 졸업생들의 환영 영상 및 학교 소개로 이뤄졌다. 2부에서는 '야무진 체험'이라는 주제로 최신 첨단 기자재 체험 및 실습 활동과 신입생 상품 증정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치위생학과 2학년 재학생들은 예비대학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하여 손 편지를 준비했으며, 치위생학과 학생회에서는 예비대학을 위한 준비를 세심히 맡아 운영했다. 최동환 기자

### 인사

#### 광주시

◇3급 승진 △미래차산업과 최태조 △공간혁신과 신재욱 ◇4급 승진 △여성가족과 김남천 △인사정책관 김종호 △사회재난과 문길상 △교육지원정책과 유만근 △5·18민주과 정영록 △돌봄정책과 박영숙 △에너지산업과 박준식 △공공보건의료과 강윤선 △물관리정책과 김 훈 △도로과 이한민 ◇5급 승진 △여성가족과 강명호 △감사위원회 고영훈 △군공항이전추진단 고홍식 △노동일자리정책관 김미설 △안전정책관 김상중 △문화정책관 김진구 △대학인재정책과 오유미 △정책기획

관 오지은 △돌봄정책과 이철구 △문화정책관 정선화 △기후대기정책과 진정화 △노동일자리정책관 최영랑 △장애인복지과 최해송 △세정과 정재강 △자치행정과 송상호 △도로과 유화숙 △여성가족과 송안선 △회계과 나우철 △미래차산업과 안정홍 △미래차산업과 손경우 △농업동물정책과 강지희 △농업동물정책과 서은주 △로봇가전 의료산업과 양지윤 △안전정책관 김경규 △군공항이전추진단 유정석 △정책기획관 이현정 △문화도시조성과 김지현 △보건환경연구원 김지연



###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 20주년 '이화 간호 정원' 발간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간호부가 20년의 여정을 담은 '이화 간호 정원'을 펴냈다. (사진)

지난 16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개원 20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 책은, 간호부가 걸어온 2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국립대학교병원 최초 JCL인증 및 재인증 과정, 간호사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배움의 즐거움 등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직원들의 생생한 후기로 구성됐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기억,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전남 지역 감염병 관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단합으로 성공적으로 위기를 이겨냈던 감동의 순간도 적혀 있다.

이애경 간호부장은 "환자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이뤄온 우리들의 간호철학과 가치가 책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화 간호 정원' 첫 번째 챕터에는 2004년 개원 시부터 화순전남대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안순희 초대 간호부장과 정미숙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장 등이 첫 진

료 전 준비단계부터 기억에 남는 순간, 간호사들의 분위기, 근무 환경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함께한 스무해 △이화 간호 정원의 따뜻한 기억 △우리가 사는 세상 현상 노크 △사랑을 담아 토타토타 △변화와 성장의 교육 여정 △함께 가꾼 간호정원을 주제로 나눠 다양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민정준화순전남대병원장은 "간호부는 우리 병원의 20년 역사 속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채워가며 감동을 선사했다"며 "20년의 여정을 담은 책 발간이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간호부가 환자 중심병원 실천을 위해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고, 병원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토록 아름다운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의 따뜻한 스무해 여정'을 주제로 최근 병원 여미홀에서 열린 발간 기념회에는 민정준 병원장,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실장, 이애경 간호부장 등 임직원과 의료진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병하 기자

### 조권 "2AM 음방 첫 1위 때 울다가 기절 직전까지 가"

그룹 '2AM' 조권(사진)이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울다가 기절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17일 공개된 웹예능 '조신하게'에는 '러블리즈' 유지애와 정예인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조권은 게스트들과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다. 질문은 24시간 앵글리(Angry)와 24시간 크라이(Cry) 중 편향은 친구.

유지애는 "눈물이 딱히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권이 "러블리즈 상 받았을 때"라고 하자 유지애는 "첫 상을 받았을 때 그뻐 울었다"고 답했다.

조권도 공감하며 "저는 거의 울다가 기절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2010년 2AM이 발표한 첫 번째 미니 앨범 '죽어도 못 보내'는 음원 공개와 당시 실시간 음원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다.

조권은 "죽어도 못 보내"로 1위를 너무 늦게 했다"며 "우리가 항상 2PM과 비교되니까 마음 고생을 좀 했었다. 2PM은 댄스 그룹이니까 퍼포먼스 같은 걸로 더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죽어도 못 보내' 때 1위 경쟁자가 소녀시대 '오! (OH!)'였다"며 "당연히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1위를 수상하니까 콧물이 칼국수처럼 나왔다"고 회상했다. 뉴시스